

재혼가족 청소년의 친부모관계와 새부모관계에 대한 연구 -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재혼가족신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임 춘 희¹⁾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본 연구는 재혼가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맺는 친부모관계 및 새부모관계가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및 재혼가족신화 즉 재혼가족을 초혼가족과 동일시하는 믿음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필요한 설문지는 직접 제작하였으며 재혼가정에서 생활하는 중·고등학생 43명의 응답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으로는 빈도, 백분율, Cronbach's α 계수와 Pearson's r 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유의미하게 나온 연구결과는 첫째, 친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청소년이 새부모와의 관계가 더 좋고, 재혼가족을 초혼의 핵가족처럼 보려는 믿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은 더 적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새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청소년이 재혼가족을 초혼가족처럼 보려는 믿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은 더 적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은 청소년은 재혼가족을 정상가족으로 보려는 믿음을 적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재혼가족, 재혼가족 청소년, 친부모관계, 새부모관계,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재혼가족신화

1) 교신저자 :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팀장 (E-mail : chlimnew@yahoo.co.kr)

I. 서 론

재혼가족과 청소년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한국 가족의 대표적인 변화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이는 국가경쟁력의 측면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혼인율의 감소와 이혼숙려제도의 도입 등으로 2003년 잠시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10년 사이에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혼의 증가와 이로 인한 재혼의 증가는 사회적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중요한 가족변화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재혼과 관련된 가족변화는 인구통계학적인 사실들을 검토할 때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특성들이 눈에 띈다. 2005년도에 조사된 결과(통계청, 2006)에 따르면 초혼은 크게 줄고 재혼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도 혼인 구성비는 남녀초혼이 73.9%이며 재혼(적어도 한쪽 배우자가 재혼인 경우)은 25.2%로 이는 10년전인 1995년도에 초혼이 85.7% 재혼이 13.4%이었던 것에 비해 재혼의 구성비가 2005년에는 25.2%로 약 두 배로 증가하였다. 재혼을 남녀별 구성비로 볼 때 남성의 재혼은 1995년도 10.02%에서 2005년도 18.2%로, 여성

의 재혼은 9.1%에서 20.4%로 지난 십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하면서 여성의 재혼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혼인형태별 재혼의 유형을 보면 1995년도 남녀 양쪽이 재혼한 경우가 6.4%에서 2005년도 14.7%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가장 많은 재혼을 차지하는 유형이다. 다음으로 초혼인 남성과 재혼인 여성의 재혼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도는 6.4%로 재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이었다. 1994년 이전에 많았던 재혼남성과 초혼여성의 혼인은 2005년도 4.1%로 현재 가장 적은 수를 차지하는 재혼유형이라 할 수 있다.

혼인연령을 볼 때 평균 초혼연령의 증가(2005년도 남성: 30.9세, 여성: 27.7세)와 함께 평균재혼연령도 증가하여 2005년도 남성의 경우 44.1세 여성은 39.6세로 나타났다(통계청, 2006). 오늘날 이혼 후 재혼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혼상황을 살펴보면 남녀모두 이혼 후 재혼이 크게 증가하였고 2004년도 협의이혼이 86.5%, 재판이혼이 12.8%로 협의이혼이 주류를 이루며 이혼당시 미성년자녀의 유무를 볼 때 2004년 이혼당시 2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는 63.3%였으며 그 가운데 20세 미만 자녀를 두 명두고 이혼한 경우는 31.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명인 경우로 27.3%인

표 1.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혼인구성비

계	혼 인 구 성 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초)+여(초)	85.7	85.3	84.9	84.0	82.2	81.8	79.4	78.7	77.3	75.0	73.9
남(재)+여(초)	3.5	3.6	3.4	3.5	3.5	3.4	3.8	3.8	3.9	3.9	4.1
남(초)+여(재)	3.5	3.8	4.0	4.4	4.7	4.9	5.6	5.6	5.7	6.1	6.4
남(재)+여(재)	6.4	6.6	7.2	8.1	9.3	9.6	10.8	11.5	12.5	14.3	14.7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사실들을 살펴볼 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재혼가족 그것도 미성년의 전혼자녀를 포함한 재혼가족(혹은 새부모가족, 계부모가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법적인 서류상이나 인구조사 통계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실제로는 재혼가족의 형태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감안한다면 밝혀진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재혼가족의 경험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성년의 전혼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의 증가는 곧 10대의 사춘기를 맞는 청소년 전혼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의 증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10대의 미성년 자녀는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청소년기는 이차 성징이 발현되는 사춘기로 시작되어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개별화하고 심리적으로 독립하려는 욕구가 증가하며 또래관계에 치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발달적 과제를 맞이하면서 가족관계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정서적 긴장감을 갖게 된다.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호소문제를 분류한 결과 (한국청소년상담원, 2003)에 의하면 가족문제에 관한 것이 19.6%로 학교부적응, 비행, 진로, 성, 성격, 정신건강 등을 망라한 영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중에서도 부모자녀 관계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같은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발달 과업은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응집성을 필요로 하는 재혼가족의 요구와는 상충하면서 재혼가족의 청소년이나 부모들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사춘기 자녀가 있는 경우 계부모가족이 힘든 이유는 자녀가 사춘기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계부모가족에 대한 적

응과 겹치기 때문이다 (Hetherington et al., 1991; 정옥분, 2005에서 재인용). 초혼 핵가족과 재혼가족의 청소년의 발달과업상 다소 차이가 나는 양상에 대한 선행연구(Sager et al., 1983)의 내용은 표2로 살펴볼 수 있다.

재혼과 재혼가족의 증가는 가족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많은 취약성을 가지고 출발하는 만큼 가족의 재해체의 위험이 높을 수 있다. 재혼가족의 취약성은 특히 청소년자녀가 있는 경우 고조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Carter와 McGoldrick(1988)이 말하는 수직적 스트레스와 수평적 스트레스들이 전형적으로 연속적으로 별개의 단계로 나타나는 핵가족과는 달리 재혼가족에서는 중첩되거나 반대로 일어나거나 혹은 핵가족에서는 경험하지 않았던 독특한 스트레스들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이 있는 재혼가족은 가족의 응집을 더 요구하게 되는 재혼가족의 과업과 더욱 더 독립을 요구하는 청소년과의 마찰이 심각해 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을 둘러싼 친부모자녀나 새부모자녀와의 갈등은 가족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도 될 수 있다. Fine 등(1991)의 연구에서 청소년을 둔 계부모가족도 더 나이가 어리거나 더 나이든 자녀를 둔 계부모가족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nderson 등(1999)은 재혼가족 청소년이 이혼하지 않은 초혼 핵가족 청소년에 비해 문제행동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보고했다.

재혼가족에서 생활하는 12세에서 1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으로 Lutz(1983)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Visher & Visher, 1988에서 재인용): 친부모끼리 싸우거나 서로에 대해 험담할 때, 따로 사는 부모를 만날 수 없을 때, 친부모와 새부

표 2. 초혼핵가족 및 재혼가족 청소년의 발달과업 수행양상

초혼 핵가족의 청소년	재혼가족의 청소년
1. 청소년 전기의 과업을 양친 부모의 안정된 환경에서 숙달하며 다음 연령에 적합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다	1. 청소년 전기의 과업을 숙달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가정환경의 안정성이 가정해체(가령, 이혼)의 불화기간을 거쳤기 때문이다. 편부모기간동안 자녀는 부모의 신입자, 배우자 같은 역할을 맡거나 부모화된 아이의 특성같은 부적절한 역할과 책임을 맡을 수 있다. 충성심갈등, 핵가족 상실에 대한 만성적인 슬픔과 버려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잠재할 수 있다.
2. 아동의 역할을 끝내고 성인의 역할을 시작하는 일이 어렵다. 그러나 하나의 종결과 시작과정이며 부모와 형제가 함께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2. 이중의 종결(아동역할상실과 핵가족의 상실)과 이중의 시작(성인으로서의 역할, 재혼가족의 성인성원으로서는)과정이 이루어진다. 부모의 이혼과 재혼이 청소년기에 가까울수록 보다 동시에 일어나며 이중적인 측면이 강렬해진다.
3. 청소년이 부모의 다양한 성격측면을 표현할 수 있으며 비록 비판적이긴 해도 부모와의 동일시를 수용하는 감정이 보편적이다	3. 재혼가족에서 한 명의 친부모는 다른 친부모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은 충성심속박에 놓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 명의 친부모를 거부하거나 자신이 거부한 부모의 특성을 무의식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새 부모는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동일시의 대상이 된다. 재혼가족은 활기찬 결혼의 부부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 다중적인 동일시는 청소년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 반면에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정체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부모들이 대립되고 청소년에 대한 가치관과 관점이 상반될 때 그러하다
4. 청소년은 종종 기분의 난조를 경험한다. 강한 애정에서 미움으로 이상주의에서 편견으로 신나는 기분에서 우울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기 쉽다. 그러나 가족 역사가 안정된 상황이므로 버려질까봐 두려워 하는 문제는 없다	4. 기분의 난조를 경험하는 것은 똑같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분노가 강렬하다(안정된 가족환경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충성심갈등과 버려지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부모에 대한 감정표현을 억제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역사는 차이가 있으므로 가족관계상의 분리를 초래한다. 모호성과 상황에 대한 분노가 종종 새부모에게 향하게 된다
5. 부모들은 안정된 성생활의 패턴을 보이며 근친상간 금기가 확고하다	5. 재혼가족에서 성적 분위기가 고조된다. 청소년에게 새부모나 새형제에 대한 성적 호기심의 가능성이 많아지며 근친상간의 금기가 약하다. 그러므로 가정내 성적 활동이 많아지거나 자극에 대한 반동형성이 일어나기 쉽다

출처: Sager, Brown etc.(1983). *Treating the remarried family*. New York: Brunner/Mazel. pp.250-256 내용 요약

모가 싸울 때, 친부모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때, 새부모가 정한 새로운 규범에 적응해야 할 때, 새부모의 훈육을 받아들여야 할 때, 일이 잘못되기만 하면 비난받을 때, 친부모가 자기보다 새형제자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때, 새형제들과 자기 방을 같이 써야 할 때, 나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변해서 이혼 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랄 때, 새부모가 뭔가를 하라고 말할 때, 재혼가족이 잘 되는 것은 너에게 달렸다는 식의 느낌을 받을 때.

재혼가족의 청소년에 대한 발표자료(송순, 2002; 현은민, 2003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부모가 재혼한 가정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재혼 과정에서 재혼 전에 새 가족을 소개받는 등 충분한 사전준비가 있을 때 거부감, 소외감이 적고 잘 적응하였으며 오히려 보호받고 의존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의 장점을 인식하고 재혼 전 부모갈등이 심했던 청소년은 재혼 가족을 좋게 평가하였다. 같은 자료에서 청소년들은 모의 재혼노출시 심리적 불안과 갈등을 겪었으나 비동거 부모에 대해서는 가정파탄의 원인제공자로서 냉담하게 평가하고 계부에 대해서는 어색하고 쑥스럽다는 태도를 가진 반면 계모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한 친부모와 새부모 그리고 청소년

미국에서 1990년대 간행된 연구의 약 삼분의 일이 재혼 또는 동거 계부모가족과 사는 것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것이었으며 계부모가족 생활이 계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장 지배적인 시각으로 스트레스 가설이 있다 (Coleman et al., 2000). 이는 계부모

와 사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경험으로 해롭다는 것으로 부모의 재혼과 동거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는 것, 새 가구성원에게 적응하는 것, 새로운 가정일과 활동 등 많은 변화를 수반하며 이것이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성적이 저하되거나 내면적/ 외현적 행동문제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의 재혼이 계자녀에게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설명으로는 경제적 박탈가설이 있는데 이는 편부모와 사는 자녀와 계자녀는 양친가정 자녀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과 그와 관련된 결손환경 때문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부모의 재혼에 따른 자녀의 행동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계자녀의 행동은 부모나 계부모가 생활에 대한 관여를 줄인 결과로 보는 계부모관여 모델이 있다. 즉, 재혼은 자녀를 유능하게 키우는 부모의 능력을 감소시키는데 그것은 자녀양육보다 새배우자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Downey, 1995; Pong, 1977).

이런 가설들에 국한하지 않고 어느 가족유형에서나 자녀가 청소년기에 들어갈 때 부정적인 행동이 증가하며 결국 부모가 독립성을 많이 부여할수록 부모에게 긍정적으로 행동한다는 보고(Coleman et al., 2000)도 있다.

청소년자녀를 둔 재혼한 친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Arnaut et al., 2000)결과 재혼한 친부모들의 스트레스는 재혼가족 형성후 정상가족(normative families)에 대한 기대와 깊게 뿌리박힌 신화들로 인한 충격과 실망 그리고 새배우자와 자녀사이의 충성심의 양분과 같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계모가족에 대한 연구(임춘희, 1996)에 의하면 전처자녀와 사이가 좋았던 계모라도 전처자녀가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감정적 마찰을 빚는다던가 재혼계모의 경우 또한 사춘기 전처녀의 반항으로 마음고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한 남녀 1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혜경 등(2002)의 연구에서는 재혼 후 남성배우자의 친자녀 성격이 변했다고 한 응답에서 긍정적인 변화로는 가정생활이 안정되고 새엄마의 관심과 노력으로 성격이 안정되고 밝아졌다는 점을, 그리고 부정적인 변화로는 친모와의 만남이나 이혼으로 성격이 내성적이며 반항적으로 변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재혼남성이나 재혼여성이 친자녀를 양육하는데 따른 어려움으로는 성격을 첫 번째로 꼽았다. 그러나 성격 문제 다음으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의 부족이 어려움으로 나타나 재혼 후 재혼부모가 친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적어졌다고 보고하였다.

재혼가족의 새부모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친자녀와 새자녀 사이에서 겪는 충성심갈등 문제를 다룬 연구(Clingempeel et al., 1994)에 의하면 대부분의 계부들은 이상적으로는 같이 사는 새자녀나 따로 살고 있는 친자녀에게 동등하게 개인적 자원을 켜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새자녀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금전을 주며 친자녀에게는 더 많은 애정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연구(임춘희, 1996)에서 재혼여성이 자신의 친자녀와 계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남편의 친자녀 편애와 친자녀와 계자녀를 둘러싼 편가름과 마찰, 친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힘들어했으며 계모인 재혼여성이 자신의 친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계자녀와의 관계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재혼자라 하더라도 친부모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따라 친자녀나 계자녀와 맺는 관계의 의미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재혼가족과 관련된 인지: 재혼가족 고정관념과 재혼가족 신화

재혼가족의 성공과 안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친부모자녀관계나 새부모자녀 관계 못지않게 재혼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고정관념이나 재혼가족원 스스로 갖는 비현실적 기대나 믿음 즉 재혼가족신화는 재혼가족생활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인지적 요소로 간주되어왔다. 여기서 인지(cognition)란 사고, 이념, 신념, 가치관, 기대 그리고 지각을 포함하는 것으로 많은 인지가 가족의 발달과 가족성원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Schwebel & Fine, 1994).

가령, 재혼과 관련된 인지의 하나인 고정관념으로 대표적으로 새엄마와 관련된 것이 범문화적이라 할 수 있다. 새엄마를 비정한 성격의 소유자로 간주하는 고정관념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재혼가족을 편견을 가진 눈으로 본다. 가령 Schwebel 등(1991)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은 친부모나 입양부모 그리고 사별해서 혼자가 된 부모에 비해 새부모에 대해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혼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혼가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혼가족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경험적 자료보다는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적 자료에 근거한다. 그러나 사실상 재혼가족은 어느 다른 유형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장점과 기회를 가지고 있다.

재혼가족을 둘러싼 고정관념과 신화, 입증되지 않은 믿음의 위력은 성인들이 종종 비현

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새자녀와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다. 많은 새엄마들이 새엄마노릇에 대해 갖고 있는 세 가지 혼란 오해는 새자녀들이 새로운 결혼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의 크고 행복한 가족이 될 것이며 새자녀들은 우리의 아이들 이듯이 우리 둘다 새자녀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Burns, 1986). Pill(1990)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에 참여한 재혼가족의 41%가 배우자 중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그들의 재혼 가족이 초혼의 핵가족처럼 친밀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며 재혼가족을 시작했다고 한다.

재혼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한 고정관념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함의로는(전숙영, 1996) 첫째, 고정관념은 기존의 믿음과 일치하도록 하기위하여 지각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고정관념화된 집단을 실제적인 관찰과는 상관없이 나쁘게 평가하도록 한다. 둘째, 고정관념은 고정관념화된 집단의 구성원과 상호작용할 때 영향을 미치는데 즉, 고정관념화된 집단은 다른 집단과는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정관념은 고정관념화된 집단의 구성원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가령 양부모가정이 아닌 가정 형태에서 생활하는 사람 자신이 자신을 지각하고 평가하는 데 영향을 주어 낮은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은 재혼가족에 관한 잘못된 믿음, 허구 혹은 신화(myth)에 포함될 수 있는 부정적인 인지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재혼가족 신화(stepfamily myth)는 재혼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비현실적 기대나 신념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재혼가족은 초혼의 친부모가족과 같다, 재혼가족 적응은 신속

하게 이뤄질 것이다, 재혼가족이 되면 사랑과 관심은 즉각적으로 발달될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사악한 새엄마’라는 믿음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자녀가 친부모에서 물러서야 동성의 새부모와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 재혼가족에서 일어나는 불상사는 재혼가족이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다 는 등의 믿음은 건강한 재혼가족의 형성을 방해할 수 있는 비현실적 믿음 곧 재혼가족 신화의 예라고 할 수 있다(Visher & Visher, 1988). 가령 대표적으로 ‘즉각적인 애정에 대한 신화’에서는 재혼가족은 즉시 만들어지는 가족이며 모든 여성들에게는 엄마노릇이 쉽고 자연적이기 때문에 새엄마들은 자동적으로 새자녀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Visher & Visher, 1988). 이러한 신화들에 당면하게 되는 재혼가족은 새로운 성격들과 새로운 생활방식, 그리고 새로운 일정과 일상사들에 적응하게 될 때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즉각적인 가족’ 혹은 ‘즉석가족’에 대한 신화는 사실상 초혼의 핵가족이 정상가족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적 고정관념과 관련하여 계부모가족은 자녀와 청소년에게 일탈적이며 유해한 환경이라는 것이 계부모가족에 대한 범문화적인 지배적 시각이다(Ganong & Coleman, 1997). 그러나 계부모가족이 핵가족보다 덜 기능적이며 문제가 많다는 편견의 영향을 받는다고 가설화되었지만 계부모가족과 계부모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적 견해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없다(Ganong & Coleman, 1997).

또한 흔히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비현실적 기대로 정의되는 재혼가족 신화는 일률적으로 재혼가족의 적응을 저해하는 역기능적인 신념체계로 간주되어왔으나 사실상 엄밀

하게 양자를 구분하거나 고정관념과 재혼가족 신화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고정관념과는 달리 재혼가족신화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신화들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해로운 것은 아닐 수 있다(Benokraitis, 1999). 때로는 재혼가족을 초혼가족처럼 간주하려는 믿음이 정작 재혼가족원들에게는 재혼가족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재혼가족 형성 초기에는 재혼가족 신화가 역기능적일 수 있지만 재혼가족이 안정화하면서 초혼가족처럼 간주하려는 믿음이 오히려 가족간의 결속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실적으로 계부모가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재혼가족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자신의 재혼가족을 초혼의 양친가족처럼 간주하려는 믿음이 과연 친부모와의 관계나 새부모와의 관계와 어떤 관련을 갖느냐를 실증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재혼가족을 일반 핵가족에 비교해서 문제삼는 결혼비교 모델의 시각에서 벗어나 재혼가족에서 사는 구성원들 자신들의 시각과 재혼가족에 고유한 관계의 독특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재혼가족은 이전의 초혼 핵가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보상을 주는 가족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자녀들에게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혼한 부모의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고 같이 살지 않는 친부모와 접촉이 끊어진 자녀에게는 양육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을 줄 수 있다(Pill, 1990). 또한 특히 엄마가 재혼한 경우 이혼 후 빈곤해졌다가 재혼으로 인해 아이들의 경제적인 상황도 종종 개선된다(Cherlin, 1992).

이상과 같이 재혼가족의 증가현상과 재혼가

족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연구 고찰을 통해 연구대상으로서 재혼가족 청소년에 주목한다. 또한 청소년자녀가 맺는 친부모자녀관계와 새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청소년자녀가 재혼가족원의 입장에서 갖는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재혼가족신화들간의 상호관련성에 관심을 갖게 된다.

한편 국내에서 재혼이나 재혼가족에 대한 연구들은 재혼이 전체 혼인구성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재혼이 25%를 차지하는 200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모가족(임춘희, 1996; 임춘희·정옥분, 1997), 재혼가족내 모의 역할기능(김연옥, 1999) 재혼준비교육프로그램(정현숙 외, 1999, 2000; 박은주, 2004; 현은민, 2002), 재혼가족의 적응실태(장혜경 외 2002), 재혼가족내 아동과 청소년(현은민, 2003),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스트레스와 대처(윤주애, 2002)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재혼가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경험적 연구는 크게 부족하다. 청소년 자녀를 둔 재혼가족에서 적응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부모재혼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당사자들이 바로 청소년자녀임을 감안할 때 연구대상으로서 재혼가족의 청소년자녀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내용으로는 재혼가족의 성공과 안정에 중요한 것으로 개별적으로 언급된 재혼가족내의 관계적 요인들로서 친부모자녀관계, 새부모관계와 재혼가족 구성원이 개인으로서 갖는 개인적 인지적 요인으로서 재혼가족에 대한 믿음과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들이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를 밝혀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이는 재혼가족이 갖는 약점이나 위협요인을 찾기보다는 재혼가족

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이나 기회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관심에서 출발하며 궁극적으로는 재혼가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자녀와 친부모, 새부모들이 적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주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에 의해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혼가족의 청소년이 맺는 친부모와의 관계는 새부모와의 관계,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재혼가족 신화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둘째, 재혼가족의 청소년이 맺는 새부모관계는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및 재혼가족 신화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셋째, 재혼가족의 청소년이 갖고 있는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재혼가족 신화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II. 연구방법

연구대상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재혼가족 신화를 중심으로 하여 재혼가족 청소년의 친부모관계와 새부모관계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를 위해 서울 북부지역 총 7개교의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총 43명의 재혼가족 청소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 응답을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본 연구와 관련하여 재혼가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친부모관계, 새부모관계, 재혼가족

표 3. 설문지의 신뢰도 계수와 문항수와 문항의 예

	신뢰도 계수	문항수	문항의 예
친부모와의 관계	$\alpha = .93$	20	- 나는 같이 살고 있는 친부모님과 사이가 좋다 - 친부모님과 단 둘이 있을 때면 마음이 편하다 - 친부모님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새부모와의 관계	$\alpha = .94$	20	- 새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 나는 새부모님에게 불만이 많다 - 새부모님은 친부모님처럼 나에게 잘 해 주신다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alpha = .86$	6	- 재혼가족은 문제가 많은 가정이다 - 새부모들은 차갑고 냉정한 사람들이다 - 재혼가족이라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재혼가족 신화 (재혼가족을 초혼핵가족과 같이 간주하려는 믿음)	$\alpha = .80$	3	- 재혼가족이라도 시간만 지나면 보통 다른 가족처럼 잘 지내게 된다 - 재혼가족이라고 해서 다른 보통 가정과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 - 재혼가족도 친부모들만 있는 양친가정에서와 똑같은 노력을 한다면 문제없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에 대한 고정관념, 재혼가족 신화 즉 재혼가족을 초혼핵가족과 동일시하려는 믿음(정상가족 신화라고도 함)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는 연구자가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4점 척도의 질문지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그 각각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계수로 산출하였으며 각 계수와 문항수는 표3과 같다.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조사방법은 먼저 연구자가 아는 서울시 동·북부에 있는 중,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연락하여 구두로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협조해주겠다는 경우에 한하여 설문지 조사를 부탁하였다. 그 결과 7개교의 중학교와 6개교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조사는 학급 담임을 맡은 교사가 자신의 학급에서 재혼가족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된 학생을 따로 면담하여 설문지 조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설문조사를 수락한 학생들에 한하여 담임이 보지 않는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작성이 끝나면 학생이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담임교사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하였다. 전체 설문지의 내용은 인구 통계학적 부분과 재혼가족관계를 묻는 부분으로 부모재혼과 관련된 정서를 파악하기 위한 개방형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인 재혼가족 청소년의 개인 및 가족적 배경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재혼가족 청소년의 친부모관계와 새부모관계가 각각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재혼가족 신화와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재혼가족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가족적 배경

조사된 재혼가족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배경과 기본적인 가족배경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조사대상인 재혼가족 청소년의 나이는 만 13세에서 18세까지로 중학교 1 학년에서 고등학교 3 학년까지 총 43명이며 평균 16세이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5.9%로 다소 많으며 재혼가족의 형태는 새엄마가족이 58.1%로 여전히 새엄마가족이 재혼가족의 대부분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장혜경 외(2002)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가족형태는 계모가정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새아버지 가정도 32.6%로 예상보다 많았다. 이는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친부모의 과거 결혼은 이혼으로 끝난 경우가 76.7%로 역시 이혼으로 인한 재혼가족이 압도적인 인구통계상의 경향과 일치한다.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 당시 청소년의 나이는 그 범위가 2세에서 17세 까지로 평균 9.6세이며 현재 새부모와 재혼가족으로 함께 생활한 기간은 2년 이상이 48.8%로 가장 많았다. 현재 함께 사는 친부모의 나이는 (응답수=41명) 그 범위가 33세에서 51세까지로 평균 43.4세이며 함께 사는 새부모의 나이는 (응답수=36명) 그 범위가 30세에서 52세까지로 평균 41.0세이다. 동거친부모와 새부모의 직업은 자영업, 공무원, 은행원, 기사, 직장인, 사업가, 상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조사된 청소년들의 65.2%가 재혼가족에서 함께 생활하는 친형제가 있었으

며 표로 제시하진 않았으나 그 가운데 1명의 친형제가 있는 경우가 60.7%로 가장 많았다. 함께 생활하는 새형제 유무는 없는 경우가 60.3%로 있는 경우 보다 많았는데 이는 조사된 청소년의 경우 새부모가 데리고 온 자녀가 없는 단순형 재혼가족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보여준다. 새형제가 있다고 답한 37.2%의 청소년의 경우 새부모도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생활하는 복합형 재혼가족(complex stepfamily)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새부모가 재혼가족에서 새로 낳은 자녀가 있는지를 물어본 경우, 없다고 76.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조사대상인 청소년의 재혼한 부모들은 대부분 새로운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된 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청소년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이혼한 친부모와는 가끔 연락한다고 36.3%로 가장 많았으며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18.1%를 포함하면 같이 살지 않는 친부모와는 연락하며 지내는 경우가 전혀 연락 없이 지내는 경우(30.3%)보다는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혼해서 따로 사는 친부모의 경우 혼자 살거나 재혼한 경우가 같은 비율로(33.3%)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인 청소년들이 현재 같이 사는 친부모가 재혼하기 전부터 함께 살았는지 여부를 보면 친부모 재혼 전부터 같이 산 경우와(44.1%) 따로 떨어져 살다가 부모의 재혼으로 함께 살기 시작한 경우(44.1%)가 같은 비율로 부모의 재혼을 전후로 주거이동을 비롯한 생활변화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같이 생활하는 새부모에 대한 사전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새부모가 이전에 만난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경우가 53.4%로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모와 새부모의 부부사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좋은 편이다가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69.7%로 재혼부모의 부부사이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같이 사는 친부모가 재혼해서 좋은 점이 <있다>라고 대답한 경우, 구체적으로 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좋아지셨다/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줘서 좀 편한 것 같다/ 엄마가 전보다 더 행복하신 것 같다/ 화목해졌고 좋다/ 아빠가 잘 웃으신다/ 엄마가 자주 웃으시고 경제적으로 좋아졌다/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다/ 그래도 예전 엄마 아빠와 살 때보다는 화목한 편이다/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 동생이 엄마가 생겨서 많이 안정되었다/ 싸움이 적어졌다/ 아빠가 때리는 일이 줄었다/ 일단 엄마가 생겨서 좋다, 아빠가 못하시는 걸 잘 챙겨준다/ 집안일 부담이 줄었고 아빠가 술을 적게 드신다/ 엄마와 언니, 나 이렇게 세 명 뿐인 여자들로 가정을 꾸미고 살 때보다 아버지라는 버팀목이 큰 힘이 될 때가 있다/ 경제적으로 양호하고 더 잘 챙겨준다/ 엄마아빠가 싸우는 일이 없다/ 용돈을 많이 준다/ 엄마가 일을 안해도 된다. 당당하게 친구들한테 아빠얘길 한다/ 가정형편이 더 좋아졌다/ 아빠가 술을 덜 마신다/ 식사, 빨래, 동생보는 일이 줄었다/ 동생이 생겨서 좋다

같이 사는 부모님의 재혼으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재혼가족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가족적 배경

		명(수)	%(소수 셋째반올림)
연령(만) (학년)	13(중1)	2	4.65
	14(중2)	4	9.30
	15(중3)	10	23.25
	16(고1)	9	20.93
	17(고2)	9	20.93
	18(고3)	9	20.93
성별	남학생	24	55.81
	여학생	19	44.19
재혼가족형태	재혼한 아버지와 새어머니	25	58.14
	재혼한 엄마와 새아버지	14	32.56
	기타(언니/누나/이모/엄마)	4	9.30
재혼 전 상황	부모의 이혼	33	76.74
	부모의 사별	10	23.26
새부모와의 동거기간	6개월 미만	2	4.65
	1년 이상 2년 미만	17	39.53
	2년 이상	21	48.84
	같이 살지 않음	1	2.33
	무응답	2	4.65
동거하는 친형제의 수	없다	14	32.56
	있다	28	65.12
	무응답	1	2.33
새 형제의 수	없다	26	60.47
	있다	16	37.21
	1명	10	(62.5)
	2명	6	(37.5)
	무응답	1	2.33
부모님 재혼 후 새로 낳은 형제 수	없다	33	76.74
	있다(모두 1명)	8	18.60
	무응답	2	4.66

(*부모님과 사별한 10명이 제외되어 총응답자수는 33명임)

표 4. 계속 (2)

		명(수)	% (소수 셋째반올림)
종교	없다	24	55.81
	있다	17	39.53
	기독교	9	(52.94)
	불 교	5	(29.41)
	천주교	3	(17.64)
	무응답	2	11.76
동거 친부모의 종교	없다	14	32.56
	있다	27	62.79
	기독교	10	(37.04)
	불 교	10	(31.04)
	천주교	6	(22.22)
	기 타	1	(3.70)
	무응답	2	4.65
재혼가족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활수준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6	13.96
	보통이다	27	62.80
	경제적으로 어렵다	9	20.93
	무응답	1	2.33
*함께 살지 않는 친부모와의 접촉 연락관계	전혀 연락 없다	10	30.30
	연락없이 타인에게 소식만 듣는다	3	9.09
	가끔 연락한다	12	36.36
	자주 연락하고 만난다	6	18.18
	기타(연락오지만 피함) 및 무응답	2	6.06
*이혼하여 현재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결혼상태	재혼하였다	11	33.33
	혼자사신다	11	33.33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	9	27.27
	기타(재혼 후 이혼) 및 무응답	2	6.06

(*부모님과 사별한 10명이 제외되어 총응답자수는 33명임)

표 4. 계속 (3)

		명(수)	%(소수 셋째반올림)
*이혼하신 친부모님끼리의 접촉, 연락관계	전혀 연락안함	12	36.36
	가끔 연락함	6	18.18
	잘 모른다	14	42.42
	무응답	1	3.03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친부모가 재혼하기 전에 함께 살았던 가족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모	19	44.19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살았다	19	44.19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5	(26.32)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7	(36.84)
	이모	2	(10.53)
	언니	1	(5.26)
	엄마집과 아빠집을 왕래	3	(15.79)
	혼자	1	(5.26)
	무응답	5	11.63
함께 사는 친부모의 재혼사실을 알게 된 계기	부모님이 직접 알려 주었다	25	58.14
	혼자서 눈치로 알게 되었다	13	30.23
	주변 친척이 알려주었다	3	6.98
	무응답	2	4.65
현재 함께 사는 새부모와의 살기 전 관계	아는 사이로 자주 만났다	6	13.95
	만나지는 않았지만 아는 사이였다	9	20.93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23	53.49
	기타 및 무응답	5	11.63
현재 개인적으로 상담이나 정신과치료 경험 여부	받은 적 없다	38	88.37
	현재 받고 있다	2	4.65
	지금은 아니지만 받은 적 있다	2	4.65
	무응답	1	2.33

(*부모님과 사별한 10명이 제외되어 총응답자수는 33명임)

표 4. 계속 (4)

		명(수)	% (소수 셋째 반올림)
함께 사는 친부모와 새 부모간의 부부 관계	좋은 편이다	20	46.51
	보통이다	10	23.26
	가끔 다투시는 편이다	6	13.95
	자주 다투시는 편이다	4	9.30
	무응답	3	6.98
현재 가정의 화목한 정도	화목한 편	6	13.96
	보통이다	20	46.51
	문제가 약간 있다	13	30.23
	심각한 문제가 많다	2	4.65
	무응답	2	4.65
현재 가족생활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0	0
	만족한다	16	37.20
	다소 불만이다	18	41.86
	불만이 많다	6	13.95
	무응답	3	6.98
함께 사는 친부모와의 관계	매우 만족한다	2	4.65
	만족한다	18	41.86
	다소 불만이다	11	25.58
	불만이 많다	7	16.28
	무응답	5	11.63
현재 함께 사는 새부모와의 관계	매우 만족	2	4.65
	만족	18	41.86
	다소 불만	12	27.91
	불만이 많다	6	13.95
	무응답	5	11.63
합계		43(명)	100.00(%)

(*부모님과 사별한 10명이 제외되어 총응답자수는 33명임)

표 4. 계속 (5)

		명(수)	%(소수 셋째반올림)
같이 사는 친부모가	없다/모르겠다/그저 그렇다	13	30.23
재혼해서 좋은 점	있다	30	69.77
합계		43(명)	100.00(%)
같이 사는	없다, 모름	6	11.63
부모님의 재혼으로	있다	36	83.72
가장 힘들었던 점	기타(같이 살지 않아 힘들다)	1	2.33
합계		43(명)	100.00(%)

(*부모님과 사별한 10명이 제외되어 총응답자수는 33명임)

자식 차별할 때, 성격이 맞지 않을 때/ 엄마아빠가 동시에 나한테 화낼 때 기분나쁘다/ 친구한테 말해야 하는 경우/ 내가 외톨이라는 허무감을 느꼈다/ 눈치를 보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다/ 아빠가 오히려 새아빠같다, 새엄마하고 있을 때 오히려 잘 해주는 적할 때가 있다/ 크게 힘든 점은 없지만 항상 말조심과 눈치가 보였다/ 엄마라고는 하지만 어색하다/ 새엄마랑 성격이 맞질 않는다/ 우리와 새아빠와의 불화/ 새엄마와 적응하는 것/ 새아빠가 돈을 잘 벌어들이지 않는 것/ 엄마한테 엄마라고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새아빠쪽 부모님이 눈치를 주는 것/ 일단 모든 것이 다 싫고 아버지나 새엄마나 다 미울 뿐이다/ 재혼해서 돌아간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 엄마라고 부르기 어색함/ 새엄마라는 여자가 이기적이다/ 왜 재혼하셨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남들의 시선/ 적응하기 힘들었다/ 엄마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싫다/ 아빠가 새엄마만 좋아하시는 것 같다/ 따로 사는 친엄마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식성이

안맞아서 다투곤 한다 그냥 하는 말도 비꼬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쁠 때가 많다/ 친구들한테 창피하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다/ 자기애랑 차별한다.

재혼가족 청소년의 친부모관계와 새부모관계,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및 재혼가족 신화와의 상관관계

재혼가족 청소년의 친부모관계와 새부모관계,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및 재혼가족 신화(재혼가족을 초혼핵가족과 동일시하는 믿음)와의 관계에 대한 42명의 분석결과(현재 재혼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1명을 제외)는 표 5 및 표 6과 같다.

표 5. 각 질문지의 평균 및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표본수
친부모관계	53.476	15.697	42(명)
새부모관계	49.904	18.862	42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12.809	4.374	42
재혼가족신화	8.309	2.235	42

표 6. 상관관계 행렬표

	친부모관계	새부모관계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정상가족에 대한 믿음
친부모관계	1.000			
새부모관계	.534**	1.000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595**	-.612**	1.000	
재혼가족신화	.491**	-.407**	-.742**	1.000

** p<0.01

첫째, 청소년이 현재 함께 사는 친부모와의 관계와 새부모와의 관계의 상관계수는 $r=0.534(p < 0.01)$ 로 친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재혼가족 청소년이 새부모와의 관계도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이 현재 함께 사는 친부모와의 관계와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의 상관계수는 $r=-0.595(p < 0.01)$ 로 친부모와 관계가 좋은 청소년이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더 적게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이 현재 함께 사는 친부모와의 관계와 재혼가족 신화와의 상관계수는 $r=0.491(p < 0.01)$ 로 함께 사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청소년이 재혼가족을 초혼가족처럼 보려는 믿음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청소년의 새부모와의 관계와 재혼가족 신화와의 상관계수는 $r=0.407(p < 0.01)$ 로 함께 사는 새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재혼가족 청소년이 재혼가족을 초혼가족처럼 보려는 믿음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재혼가족 청소년의 새부모와의 관계와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의 상관계수는 $r=-0.612(p < 0.01)$ 로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은 청소년이 새부모와의 관계가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재혼가족 청소년들의 새부모와의 관계와 재혼가족 신화와의 상관계수는 $r=0.407(p < 0.01)$ 로 재혼가족을 정상가족으로 보려는 믿음이 많을수록 새부모와의 관계도 좋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재혼가족 청소년이 재혼가족에 대해 갖는 고정관념과 재혼가족 신화와의 상관계수는 $r=-0.742(p < 0.01)$ 로,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은 청소년이 재혼가족을 초혼가족으로 동일시하는 믿음을 더 적게 갖는다고 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먼저, 재혼가족 청소년이 현재 함께 사는 친부모와의 관계와 새부모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둘의 상관이 상관계수 $r=0.534(p < 0.01)$ 로 함께 사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재혼가족 청소년이 새부모와의 관계가 더 좋다는 결과는 다시 한번 재혼가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에 있어서 같이 사는 재혼한 친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재혼가족 청소년들이 적응하는데 힘들어 하는 부분이 바로 새부모와의 관계

임을 고려할 때 재혼가족 청소년들이 친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새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재혼가족 청소년의 적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재혼가족에서 부부관계와 새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별개 차원일 수 있다. 재혼 부부 사이가 좋다고 해서 새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사된 재혼가족 청소년들의 46.5%가 함께 사는 친부모와 새부모의 사이가 좋다고 인식한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이처럼 청소년이 보기에 재혼한 부모의 부부 사이가 좋은 경우 청소년이 친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새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도 긍정적인 관련을 가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재혼가족 청소년이 현재 함께 사는 친부모와 맺는 관계와 재혼가족신화 즉 재혼가족을 초혼의 핵가족과 동일시하려는 믿음의 상관계수는 $r=0.491(p < 0.01)$ 로 함께 사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재혼가족 청소년이 재혼가족을 초혼가족처럼 보려는 믿음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이 현재 함께 사는 새부모와 맺는 관계와 재혼가족을 초혼가족으로 보려는 믿음과의 상관계수는 $r=0.407(p < 0.01)$ 로 함께 사는 새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재혼가족 청소년이 재혼가족을 초혼가족처럼 보려는 믿음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흔히 가족관련 문헌에서 재혼가족을 초혼의 핵가족과 같이 보려는 믿음을 정상가족신화라고도 언급되며 이는 재혼가족의 고유한 특성을 현실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허구적 믿음으로 재혼가족 적응의 걸림돌로 간주되어 왔지만(Visher & Visher, 1998), 정작 재혼가족 내부인의 시각을 가진 재혼가족 청소년의 경우에 이러한 믿음

이 같이 사는 친부모나 새부모와의 관계에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는 흔히 재혼가족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재혼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고정관념의 타파나 재혼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의 중요성이 거론되듯이 재혼가족 청소년들이 그러한 고정관념을 많이 받아들이수록 친부모관계나 새부모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며 나아가 재혼가족에의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재혼가족 청소년이 친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을수록 그러한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의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재혼가족의 친부모들은 청소년기의 친자녀와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새부모가 된 성인의 경우도 재혼배우자가 데리고 온 자녀와 관계를 좋게 맺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상관분석 결과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재혼가족 청소년이 맺는 친부모관계와 새부모관계 그리고 재혼가족 신화와의 상관관계이다. 재혼가족 청소년이 맺는 친부모와의 관계와 재혼가족을 초혼가족으로 보려는 믿음 소위 정상가족 신화 혹은 재혼가족신화와의 상관계수는 $r=0.491(p < 0.01)$ 였다. 즉, 함께 사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재혼가족 청소년이 재혼가족을 초혼가족처럼 보려는 믿음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재혼가족을 초혼가족과 동일시하려는 믿음을 가진 청소년이 친부모와의 관계가 더 좋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새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r=0.407(p < 0.01)$). 재혼가족은 흔히 상실감 속에서 출발한 가족으로 재혼가족의 적응에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인 신화, 비현실적 믿음, 허구적 믿음들 중의 하나로 정상가족신화가

거론된다. 즉, 재혼가족을 이혼, 사별 경험인 양친부모가 있는 핵가족처럼 보통가족, 정상가족으로 간주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기대이므로 그러한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재혼가족을 돕는 것으로까지 주장되었다(Visher & Visher, 1998). 이러한 조언은 특히 재혼을 앞둔 성인들이나 재혼생활에 대해 비현실적 기대를 갖고 생활하며 어려움을 겪는 성인들에게는 필요하고 타당할 수 있다. 가령 Kurdek과 Fine(1991)의 계부가정 연구에서 초혼가정에 특징적인 행동과 기대를 즉 재혼가족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진 새부모들은 가족과 부모, 부모역할상의 만족도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재혼가족의 긍정적인 적응은 명료한 역할 기대, 현실적 기대, 가족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원인에 대해 균형잡힌 인과귀속 그리고 재혼가족은 초혼가족과 기능적으로 똑같지 않다는 인지와 관련있다고도 한다(Fine & Kurdek, 1994).

그러나 조사대상자들처럼 재혼가족생활이 대부분 2년 이상이 되었고 아직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청소년기 자녀들의 입장에서 친부모는 아니더라도 새부모가 부재중인 다른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며 그 속에서 나름대로 재혼가족의 긍정적인 면을 경험한 경우 자신의 재혼가족이 다른 양친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친부모관계와 새부모관계를 맺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재혼가족임으로 인해 얻은 긍정적인 면들과 함께 빨리 자신의 재혼가족을 일반 양친가정과 동일시하는 것이 외부에 노출되는 두려움이나 심리적인 긴장을 줄이고 싶어하는 내적인 욕구의 표현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재혼가족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상태의 청소년이 재혼가족을 초혼의 양친가족 소위 정

상가족으로 간주하려는 믿음을 갖는 것은 재혼가족의 청소년들의 적응에 순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인 재혼가족 청소년들이 관계형성의 초기단계를 지나면서 재혼가족 생활을 자신들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억압적인 환경으로 보기 보다는 부모재혼 이전에 한부모 가정이었을 때보다 자신들에게 이롭고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기회로 간주함으로써 재혼가족을 초혼가족처럼 생각하는 것이 친부모와의 관계나 새부모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완충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리하여 재혼가족을 초혼가족처럼 생각하려는 믿음 즉 재혼가족신화를 가진 청소년이 친부모 및 새부모와 더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친부모, 새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재혼가족 청소년들은 재혼가족이 초혼가족과 차이가 없다는 믿음을 더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더 많이 가진 재혼가족 청소년은 재혼가족을 초혼가족과 동일시하려는 믿음 즉, 재혼가족신화를 더 적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0.742$, $p < 0.01$).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인 청소년들이 재혼가족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혼가족 청소년의 입장에서 재혼가족의 긍정적인 영향을 경험하면서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은 적어지면서 재혼가족을 초혼가족과 동일시하려는 믿음은 커질 수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재혼가족신화는 흔히 선행연구에서 재혼가족의 적응에 걸림돌이 되는 신념체계로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인지적 개념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의미에서는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재혼가족신화가 현실을 왜곡하는

허구라는 동일개념이며 가족의 적응을 저해하는 역기능적인 요소를 갖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형성된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윤색되고 재혼가족의 적응에 대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역기능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재혼가족신화는 기본적으로 재혼가족을 초혼가족과 동일시하려는 비현실적인 기대로 재혼가족에 역기능적일 수도 있으나 때로는 기능적일 수 있다.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은 일반 사회의 외부인 관점에서의 편견이라 한다면 재혼가족신화는 재혼가족성원의 내부인의 관점에서 재혼가족을 초혼가족과 동일시하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비현실적 기대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신화들은 Benokraitis(1999)가 언급했듯이 현실적으로 가족에게 현실과 이상에서 오는 괴리감으로 정서적 위축이나 좌절감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족원들을 결속시키며 위기나 갈등을 겪는 가족 성원들에게 희망과 정서적인 균형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적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친부모나 새부모와 관계가 좋은 재혼가족 청소년이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은 더 적게 그러나 재혼가족신화는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재혼가족신화에 대한 구분과 재혼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재혼가족 고정관념 및 신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재혼가족 생활의 기간과 경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차이 등 다양한 변인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첫째, 재혼가족의 청소년이 친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

하다. 이는 새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높이며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의 부정적 영향을 막아주고 재혼가족도 초혼가정과 차이가 없다는 신념을 강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재혼가족의 부부관계 강화 못지 않게 재혼가족에서 재혼한 친부모와 청소년기 친자녀가 맺는 관계가 중시되어야 한다.

둘째, 재혼가족의 청소년이 새부모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 또한 중요하다. 청소년이 새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친부모와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며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은 더 적게 재혼가족신화는 더 많이 수용하는 식으로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은 재혼가족 청소년들이 맺는 친부모와 새부모와의 관계와 부정적인 관련을 가지므로 재혼가족이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가진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수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회적, 개인적 차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혼한 친부모나 새부모의 입장에서는 청소년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고정관념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혼가족 청소년이 재혼가족을 초혼가족과 동일시하는 비현실적 믿음을 갖는 것이 더 나은 친부모관계와 새부모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재혼가족 청소년이 재혼가족도 초혼가정과 차이가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가족이 잘 지내게 될 것이고 노력하면 초혼가정처럼 화목해 질 수 있다는 믿음을 많이 갖는 경우 그것이 비현실적인 기대라 할지라도 재혼가족 청소년들이 친부모나 새부모에게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재혼가족신화를 비현실적이며 적응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기대로만 간주하기 보다는 청소년이 함께 살고 있는 재혼한 친부모나 새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도 간주할 수 있으며 재혼가족 청소년의 적응에 기능적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재혼가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친부모관계와 새부모관계가 중요한 만큼 재혼을 고려중인 부모나 재혼한 부모들을 위한 교육에서 친부모역할과 새부모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혼한 친부모로서 또 새부모로서 청소년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구체적인 부모교육의 내용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재혼가족 청소년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재혼가족의 현실과 재혼가족과 관련된 고정관념 및 재혼가족 신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재혼가족 청소년이 친부모, 새부모와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재혼가족신화가 가족적응에 미치는 역기능과 순기능의 과정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재혼이나 재혼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고정관념의 탈피를 위해 행복하고 건강한 재혼가족이 다양한 건강가족(strong family)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관심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으로는 횡단적 조사연구가 갖는 기본적인 한계점이 있으며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강북 지역의 서민층

이 많은 곳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다르거나 혹은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의 경우에 일반화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학교선생님의 요청을 받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더 심각한 가족갈등을 낮춰서 보고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학교선생님의 설문요청을 받지 않은 재혼가족의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에서 심각한 문제나 부적응행동을 보이는 이유 등으로 해서 조사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사대상자인 청소년들은 비교적 학교생활을 무리없이 해가는 집단으로 한정되며 연구결과 또한 그러한 집단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연옥 (1999). 재혼가정내 모의 역할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3, 42-61.
- 박은주 (2004). 재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순 (2002). 재혼가족의 증가와 가족정책. 한국가족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윤주애 (2002).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연구. 대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임춘희 (1996). 재혼가족내 계모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임춘희, 정옥분 (1997). 초혼계모의 재혼가족생활 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경험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5), 73-102.
- 장혜경, 민가영 (2002). 재혼가족의 적응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전숙영 (1996). 이혼과 재혼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

- 년의 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2005). 청년심리학. 학지사.
- 정현숙, 유계숙, 임춘희, 전춘애, 천혜정 (1999). 준비된 재혼, 또 다른 행복: 성공적인 재혼을 위한 준비교육. 동인.
- _____ (2000). 재혼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8(5), 1-13.
- 통계청 (2006). 2005년 혼인이혼통계.
- 한국청소년상담원(2003). 우리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청소년의 삶과 고민:10년의 변화-, 청소년상담문제보고서, 48.
- 현은민 (2002). 재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3), pp.153-172.
- 현은민 (2003). 재혼가족의 아동: 가족적, 사회적 측면에서 경험하는 문제와 대책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2), pp.101-126.
- Anderson, E. R., Greene, S. M., Hetherington, E. M., & Clingempeel, W. G. (1999). The Dynamics of parental remarriage. In E. M. Hetherington(Ed.), *Coping with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remarriage*(pp.295-319).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e, Inc.
- Arnaut, G. L. Y., Fromme, D. K., Stoll, B. M., Felker, J. A (2000). A qualitative Analysis of Stepfamilies: The Biological Parent.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Vol 33, 111-129.
- Benokraitis, N. V. (1999). *Marriages and families-Changes, Choices, and Constraints*. 3rd edition, Prentice Hall.
- Burgoyne, J., & Clark, D. (1984). *Making a go of it: A study of stepfamilies in Sheffield*.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 Burns, C. (1986). *Stepmotherhood: How to survive without feeling frustrated, left out, or wicked*. NY: Times Books.
- Carter, B., & McGoldrick, M. (1988).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2nd ed.) NY;Gardner Press.
- Cherlin, A. J. (1992). Marriage, divorce, remarriage. *Social trends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lingempeel, G., Colyar, J., & Hetherington, E, M, (1994). Toward a cognitive dissonance conceptualization of stepchildren and biological children loyalty conflicts: A constructive validity study.K.Pasley & M.Ihinger-Tallman (Eds.), *Stepparenting: Issues i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pp151-174).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Coleman, M., Ganong, L., & Fine, M. (2000). Reinvestigating Remarriage: Another Decade of Prog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288-1307.
- Downey, D. B. (1995). Understanding academic achievement among children in stephouseholds: The role of parental resources, sex of stepparent, and sex of child. *Social Forces*, 73, 875-894.
- Fine, M. A. (1986). Perceptions of stepparents: Variation in stereotypes as a function of current family structu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537-543.
- Fine, M. A., Donnelly, B., & Voydanoff, P. (1991).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family lives and their adjustment in stepfather families. *Journal of*

- Adolescent Research*, 6, 423-436.
- Fine, M. A., & Kurdek, L. A. (1994). A multidimensional cognitive-developmental model of stepfamily adjustment. K. Pasley & M. Ihinger-Tallman(Eds.), *Stepparenting: Issues i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pp15-32).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Ganong, L., & Coleman, M. (1994). *Remarried Family Relationships*. Sage Publications.
- Ganong, L., & Coleman, M. (1997). How society views stepfamilies. *Marriage and Family Review*, 26, 85-106.
- Gross, P. E. (1987). Defining postdivorce remarriage families: A typology based on the subjective perceptions of children. *Journal of Divorce*, 10, 205-217.
- Kurdek, L. A., & Fine, M. A. (1991). Cognitive correlates of satisfaction for mothers and stepfath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565-572.
- Lutz, P. (1983). The stepfamily: An adolescent perspective. *Family Relations*, 32, 367-375.
- Pill, C. J. (1990). Stepfamilies: Redefining the family. *Family Relations*, 39, 186-192.
- Pong, S. L. (1997). Family structure, school context, and eighth grade math and reading achieve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734-746.
- Quick, D. S., McKenry, P. C., & Newman, B. M. (1994). Stepmothers and their adolescent children: Adjustment to new family roles. In K. Pasley & M. Ihinger-Tallman(Ed.), *Stepparenting: Issues i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pp.105-125).CT:Greenwood Press.
- Sager, C. J., Brown, H. S., Engel, T., Rodstein, E., & Walker, E. (1983). *Treating the remarried family*. New York: Brunner/Mazel.
- Schwebel, A. I., & Fine, M. A. (1994). *Understanding and helping families-A Cognitive-behavioral approac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Schwebel, A. I., & Fine, M. A., Renner, M. A. (1991). A study of perceptions of the stepparent role. *Journal of Family Issues*, 12, 43-57.
- Visher, E. B., & Visher, J. S. (1996). Therapy with Stepfamilies. 재혼가족치료, 반건호, 조아랑 역(2003). 서울: 도서출판 빈센트.
- Visher, E. B., & Visher, J. S. (1988). *Old Loyalties, New Ties*. Bruner/Mazel.

1 차원고접수 : 2006. 07. 01.

수정원고접수 : 2006. 08. 22.

최종게재결정 : 2006. 09. 05.

The Relationship with Parent and Stepparent of Stepfamily Adolescents focused on Stepfamily Stereotype and Stepfamily Myth

Choon Hee Lim

Seongbuk-gu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in blended families and to examine stepfamily stereotypes and myths.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43 stepfamily adolescents living in Seoul. The major significant findings were as follows: stepfamily adolescents' relationship with their remarried parent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relationship with their stepparent. The relationships with the remarried parent and stepparent of adolescents were each negatively correlated to the stepfamily stereotype. The relationship with the remarried parent and stepparent of adolescents were each positively correlated to the stepfamily myth. Finally, the stepfamily myth accepted by stepfamily adolescents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 stepfamily stereotype.

Key words : stepfamily adolescents, the relationship with remarried parent, the relationship with stepparent, stepfamily stereotype, stepfamily myth